

## 나혜석의 처녀작 「夫婦」에 대하여 —최초의 여성작가론—

서 정 자\*

1. 머리말
2. 『여자계』 창간호
3. 나혜석의 소설 「부부」
4. 10년대 소설과 부부문제-맺음말

### 초 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나혜석의 처녀작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1917년 6월에 씌어진 나혜석의 처녀작은 우리 여성소설사에서 최초의 여성소설이 되며 10년대 우리 문학의 간파해서는 안될 성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여자계』 창간호에 여성소설이 한 편 실려 있다는 것은 알려졌다나 그 소설이 누구의 소작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20년대에 등단하여 60여 년 활동한 여성작가 박희성의 글에서 나혜석의 처녀 단편에 대한 증언을 발견하고 이 증언을 토대로 하여 나혜석의 처녀작의 실재와 그 내용을 고증하고 밝혀보았다.

나혜석의 처녀작이 실려 있는 『여자계』 창간호는 등사판과 활판 두 가지이다. 이 가운데 활판 창간호가 나혜석의 처녀작이 실려 있는 『여자계』 1호라는 것을 전영택의 글 등을 참고하여 우선 고증하였다. 다음 박희성이 증언하고 있는 작품의 내용이 나혜석의 다른 글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 결과 나혜석의 「부부」는 다른 어느 글과도 같지 않음을 밝혔다. 다음 필자는 처녀작 「부부」가 다루었다는 봉건적 유습에

\* 초당대 교양과 교수.

희생당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나혜석의 글들과 이광수의 조혼의 비극 등 당시 지식인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논설들을 참고하여 살펴본데, 그 내용이 대략 '축첩'에 관련한 것이리라는 추측이 가능하였다.

한편 나혜석과 춘원 이광수가 친밀한 관계였으며 나혜석의 소설 쓰기에 이광수의 지도가 있었으리라는 전제 아래, 이광수의 10년대 소설 가운데, 봉건적 유습에 희생되는 여성의 비극을 그린 단편 「무정」과 나혜석의 「부부」를 비교하여 보았다. 이 비교는 나혜석이 다른 소설에서 보여준 소설기법으로 미루어 이광수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짐작해 본 것이다. 이 역시 박화성의 증언, 억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이 봉건적 유습에 희생이 된 '생활상이 재치있게 잘 그려져 있다'는 것에 근거한 추론이다.

본고의 고찰로 나혜석의 처녀작은 「부부」이며 이 소설은 1917년 6월 30일자로 발간된 『여자계』 창간호에 실렸고, 이 소설에는 억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이 봉건적 유습(아마도 축첩)에 희생되는 생활상이 재치있게 그려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에 나혜석이 장편 『김명애』를 썼다는 기록과 더불어 우리는 이제 우리 여성소설사에서 나혜석의 「부부」가 최초의 여성소설이며 나혜석이 곧 최초의 여성작가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1. 머리말

1926년 1월 『조선문단』이 기획한 여자문단 부록호는 나혜석·김명순·김원주·전유덕, 이 네 사람의 소설을 실고 여자부록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실린 순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최초의 여성작가라고 알고 있는 김명순보다 나혜석의 이름이 먼저 실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나혜석이 당시의 여자문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나타내 주는 것인지 모른다. 1926년이면 김명순의 창작집 『생명의 과실』(1925년)이 출간된 뒤이니 김명순의 여성작가적 위치가 최소한 여성문학 범위 안에서만큼은 확고하였을 텐데 나혜석의 이름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은 나혜석의 소설 솜씨와 그 위상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주지하다시피 우리 문학에서 최초의 여성작가와 소설은 1917년 11월에 발표된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의심의

소녀」는 이 소설을 심사한 춘원에 의해서 표절이라는 발언이 나온 후 계속 표절의 '의혹'을 씻지 못하고 있고<sup>1)</sup> 김명순의 후속 소설들이 등단 작에 미치지 못함으로 해서 표절설은 계속 「의심의 소녀」를 따라 다니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문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문학연구자의 숙제이다.<sup>2)</sup> 반드시 표절의 의혹 때문이 아니라 최초의 여성 소설은 '실질적' '본격적'이라는 관형어를 붙여 나혜석의 작품 또는 박화성의 작품에게도 붙이고 있다. 나혜석의 경우, 그 길이나 주제, 기법 등에서 현대소설적 면모를 갖추었고, 10년대에 이미 페미니즘 소설을 쓰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인 최초의 여성소설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박화성의 경우, 처녀작 「추석전야」에서부터 리얼리즘을 창작방법으로 택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본격적 여성소설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1) 하동호, 「처녀작 주변」, 『한국문학산고』(백록출판사, 1976), p.18. 하동호는 이 글에서 “1942년 2월 춘원은 『신시대』의 요한과 교담록에서 ‘2등의 김명순 씨…나중에 창작이 아닌 것이 드러났지만…’이라고 했고, 임종국의 『홀려간 성좌』에서도 ‘현대문학사상 최초의 당선작자인 동시에 최초의 표절작가’란 언급이 있다”고 쓰고 있다.

김윤식, 「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론고』(법문사, 1973), p.233. 김윤식 교수는 이 표절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김명순의 문체에 의문을 표시하고 표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김명순의 이 작품의 문체는 펍 세련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문장이 묘사적이 아니며, 줄거리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문체이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일본소설의 어떤 것을 모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문장과 구성의 미끈함에서 그러한 의심을 품을 만 하다”고 하고, 김명순이 여학교를 다니면서 큰오빠가 읽던 일문 소설책만 읽었다는 전영택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는 특히 그 후의 「칠면조」나 「꿈몽는 날 밤」 같은 작품은 문장이 가꿈 단절되고, 심리적 추구에서 오는 거북한 묘사와 졸렬한 어법이 눈에 띄는 것은 첫 작품과 지나친 차이가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2) 필자는 「근대 여성의 문학활동」에서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가 1차 일본 유학 체험 후에 씌어진 것임을 밝혀 보았다. 전기적 사실을 확인하여 「의심의 소녀」가 일본 작품의 표절일 수 있음을 우선 짚어본 것이다. 서정자·박영혜, 「근대여성의 문학활동」, 『한국근대여성연구』(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87), p.204.

최초의 여성소설이 무엇이나를 따지는 것은 실상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0년대 우리문학에서 나혜석의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오늘날, 나혜석의 처녀작이 발굴된다면 나혜석의 소설세계는 물론이요, 10년대 우리 문학은 한결 풍요로워질 것이고 우리 여성문학도 표절의 꼬리를 뱀으로써 그 출발이 한결 당당해지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1988년 필자는 한국여성문학연구회 창립 세미나에서 『여자계』 2호에 실린 나혜석의 소설 「경희」와 「희생한 손녀에게」를 발굴,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1990년 나혜석의 두번째 소설인 이 「경희」를 『여성소설선』 I에 수록 공개하였다. 나혜석의 소설 「경희」는 여성문학계 뿐만 아니라 여성학 분야에서도 ‘경이’적인 소설로 대단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소설 「경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1910년대 우리 문학에서 남성문인의 작품을 앞지르는 탁월한 단편소설로 평가되었다.<sup>4)</sup> 이는 「희생한 손녀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여성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데도 원인이 있지만 나혜석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제 발표시기가 김명순보다 수 개월 뒤졌다 뿐이지 나혜석의 소설 「경희」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여성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계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최초의’ 라는 에피세트는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되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실질적’이라는 관형어가 붙는다는 것은 최초의 여성소설이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3) 강경애를 집중연구한 이상경 교수는 강경애야말로 본격적 여성작가라고 말한다.

4) 서정자, 「나혜석연구」, 『문학과 의식』 제2호(1988).

정순진, 「정월 나혜석의 초기 단편소설고」, 『한국문학과 여성주의 비평』(국학자료원, 1993).

송명희, 「이광수의 「개척자」와 나혜석의 「경희」에 대한 비교연구」, 『비교문학』 제20집, 1995.

김재용, 이상경 외,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이호숙, 「위약적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노영희, 「나혜석 그 이상적 부인의 꿈」, 『한립일본학연구』, 1997.11.

도 하다.

필자는 1987년 한 글에서 『여자계』 창간호에 실린 여성소설이 최초의 여성소설일 것이라는 자료를 찾아 제시한 바 있다.<sup>5)</sup> 이어 나혜석의 「경희」와 「희생한 손녀에게」를 발굴 소개하면서도 『여자계』 창간호에 실린 소설이 나혜석의 처녀작일 것이라는 언급을 한바 있었다. 나혜석의 처녀작이 따로 없다면 모르거니와 밝혀진다면 최초의 여성소설이라는 칭호는 나혜석의 작품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오랫동안 나혜석에 대하여 필자가 가져 온 작은 관심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그 동안 『여자계』 창간호를 찾아 국내외 여러 도서관 등지를 뒤져보았으나 아직까지 『여자계』 창간호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여자계』 창간호에 실렸다고 보이는 나혜석의 작품 제목과 줄거리를 발견하여 이를 나혜석의 처녀작으로 논증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작품을 입수하지는 못하였으나, 필자는 제목과 줄거리만이라도 학계에 보고해서 나혜석 소설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거기에는 나혜석이 장편소설을 쓴 바 있다는 기록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을 하였다.<sup>6)</sup> 처녀작의 확인과 장편소설의 존재는 나혜석 문학에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 여성문학사에서 또는 우리 신문

5) 서정자·박영혜, 「근대여성의 문학활동」, 앞의 책.

6) 지금까지 나온 나혜석 연구에 나혜석이 장편소설을 썼다는 자료를 제시한 논문이 없었다는 점은 이상한 일이다. 이구열 편저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2), p.25 참조(이 글의 교정 중 만난 안숙원 교수로부터 지난 4월 27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국제 학술심포지엄에서 『김명애』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었음을 전해들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안숙원 교수가 장편 『김명애』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자 나혜석의 질녀 나영균 교수가 집안에 있는 이 『김명애』 원고를 보았으며 이 원고는 6·25 전쟁 중 일실되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나혜석 장편 『김명애』가 완결된 작품이었으나 춘원 이광수가 자신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 출간을 말렸던 것 같으며,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씨도 이 소설 출판을 가져올 파장을 염려, 출간을 적극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이 원고는 수전증의 나혜석씨가 불안정한 글씨로 원고 한칸 한칸을 메워간 것으로 이혼 전후의 상황 및 심경이 담긴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학사에서 여성소설의 출발시기를 앞당기게 하고 표절 등의 시비도 끝나게 할 것이다. 나혜석의 소설이 김명순의 소설보다 앞서 발표된 것이 확실하다면 최초의 여성소설과 작가의 영예를 나혜석에게 돌려 이를 분명히 해 두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2. 『여자계』 창간호

필자가 찾은 것은 『여자계』에 나혜석의 소설 「부부」가 실려 있었다는 기록이다. 필자는 이 「부부」를 나혜석의 처녀작으로 보고자 한다. 박화성이 1968년에 쓴 「한국 여성작가의 사회적 지위」<sup>7)</sup>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썩어 있다.

참으로 한국의 신문학 초창기(1910~1920년대)에 등단한 김명순(1917)의 단편소설 「의문의 소녀」, 나혜석(1918)의 단편소설 「부부」, 김일엽(1920)의 수필이나, 박화성(1925)의 단편소설 「추석전야」, 백신애(1928)의 단편소설 「나의 어머니」 등은 당시 봉건적인 남존여비의 암흑사회를 헤치고 과감히 한국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구자적인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던 것이다.

박화성은 나혜석의 단편소설 「부부」가 있다는 정도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작가의 등단 작을 쓰는 자리에 나혜석의 「부부」를 적어 넣고 있다. 그는 나혜석의 작품 가운데 이 작품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박화성은 다시 1969년, 「문단교유기」에서 또 나혜석의 소설을 언급한다.

여기서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1923년경이 아닐까 기억하는데 그 당시 동경에 유학하던 여학생들이 만들어 내던 『여자계』라는 알팍한 잡

---

7) 박화성, 「한국여성작가의 사회적 지위」, 『순간과 영원 사이』(중앙출판공사, 1977), p.273.

지가 있었다. 거기에 춘원의 부인 허정숙씨와 지금은 여승이 된 김원주씨의 단상과 수필 등 그리고 화가 정월 나혜석씨의 단편이 실려 있었다. 나혜석씨는 화가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부부」라는 짝막한 소설에서 억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이 봉건적 유습에 비참하게 희생이 된 생활상이 재치 있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때 18세이던 나는 감탄하고 있었다.<sup>8)</sup>

위 두 인용은 문학연구자가 아닌 작가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이다. 백신애의 작품 발표시기(1929)가 1928년으로 나와 있는 점이라든가, 허영숙을 허정숙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 몇 개의 오류가 있기는 하나 박화성은 매우 주목할 만한 증언을 하고 있다. 즉 나혜석의 작품 「부부」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요, 그 줄거리까지 소개하고 있는 매우 귀중한 증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나혜석이 남긴 소설은 불과 4편, 여기저기 작품연표에 나온 것을 통 털어 보면 6편이나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규한」이나 「정순」이라는 작품명은 와전인 것 같고, 「경희」, 「희생한 손녀에게」, 「원한」, 「현숙」이 네 편이 나혜석 소설의 전부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박화성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나혜석의 소설연보에 작품 한 편을 추가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소설은 최초의 여성 소설이 된다. 여기에 나혜석이 장편소설 1편을 썼다는 기록도 덧붙여야 하리라. 이구열은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의 한 각주에서 나혜석이 장편소설을 썼다는 기록을 전제하고 있다.

동경 유학생 시대에 『여자계』란 잡지를 창간하여 晶月이란 호로써 단편소설을 많이 썼던 화가 나혜석 여사는 최근에 화필을 드는 여가에 솟아오르는 창작욕을 참을 길 없어 『金明愛』란 장편소설을 집필하여 벌써 거지만 탈고하여 春園에게 보내었다 하는데 이것은 여사의 자서전에 해당한 것으로 이 소설이 발표된다면 재화(才華)의 이 여류화가를 싸고도는 제 남성의 애욕사도 은현할 것 이어서 흥미진진할 것이라 할진저.<sup>9)</sup>

8) 박화성, 「문단교유기」, 『순간과 영원 사이』, 앞의 책, p.273.

9)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4), p.25에서 인용.

1933년 『삼천리』 12월호 「동정단신」에 실린 나혜석의 근황이다. 최린과의 스캔들로 이혼한 후 그 여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설 탈고 소식이니만큼 소개 문투가 가십투로 되어 있어 진지성이 부족한 흠이 있지만 이 인용대로라면 나혜석은 장편소설을 한 편 쓴 것이다. 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탈고까지 되었다니 불확실한 작품정보보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나혜석의 작품연보는 다시 씌어져야 하지 않을까? 1910년대, 소설작품이 영성하기 그지없는 신문학 초기, 우리 소설사에서 나혜석의 존재는 이제 그 중요성이 공인되고 있는 만큼, 그의 처녀작 「부부」의 존재, 그리고 장편소설 『김명애』의 존재 확인은 나혜석 연구자뿐만 아니라 여성소설을 아끼는 모든 이에게 매우 고무적인 사실일 것이다. 이제 문제는 “「부부」가 나혜석의 소설”이라는 박화성의 증언이 과연 사실인가를 밝히는 일이다. 필자는 이를 고증함으로써 나혜석의 소설 「부부」의 실존 여부를 증명하고 그 내용을 유추해 봄으로써 나혜석 소설세계를 밝히는 데 일조해 볼까 한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여자계』 창간호에 대한 확증이다. 『여자계』는 창간호가 언제 발간되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종류의 『여자계』의 창간호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청춘』에 쓴 육당의 글대로 1917년 9월 이전 편이요, 또 하나는 『학지광』의 소식란에 씌어진 글대로 1917년 봄에 나온 등사판이 그것이다.

『여자계』 제1호를 기래(寄來)하니 이는 동경에 유학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새소식을 고향 자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합력 간행하는 것이다. 대개 우리 아낙네가 입 있는 표를 담대하게 드러낸 효시라 할 것이리라.<sup>10)</sup>

육당은 이 『여자계』가 제1호이며 “우리 아낙네가 입 있는 표를 담대하게 드러낸 효시”라 하여 창간호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여자계』 창간호는 1917년 9월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이 창간호에 여성이 쓴 소

10) 육당, 「여자계」, 『청춘』, 1917.9, p.11.



설이 실렸다고 육당이 증언하고 있어 필자는 이 소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17년 7월 발행한 『학지광』 13호의 소식란을 보면 제1호 『여자계』는 1917년 봄에 등사판으로 발간하였고 6월말에 제2호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지난 춘기에 등사판으로 제1호를 발간하였던 잡지 『여자계』는 대 발전의 준비를 가지고 지난 6월 말일에 활판으로 50여 항의 제2호를 발행하였는데 여자 제씨의 심각한 사상과 미묘한 문장은 남자로 하여금 양면(仰面)의 여지가 없으리만큼 그 내용이 풍부하고 그 보수가 당당하더라(정가 15전, 발행소 東京府 下 下瀝谷 343 常盤屋 여자계사).

『학지광』 기사대로라면 육당이 본 『여자계』 제1호가 등사판일수도 있고, 6월말 발간의 활판 제2호 일수도 있다. 여기에서 등사판 『여자계』가 창간호인가, 활판 『여자계』 제2호가 창간호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줄 자료는 없다. 그러나 『여자계』 제2호 소식란에는 『여자계』 발간경위를 알려주는 간단한 글이 실려 있다.

우리 『여자계』의 어머니 되시는 평양 승의여중학교 동창회 잡지부에서는 이 통기(通寄)에 의하여(잡지 발간이 늦어진 사유-인용자) 각 회원에게 그 이유를 인쇄하여 돌렸다 하며 그 중에는 여하한 말이 써 있더라. “인기는 우리가 득 하였는데 명예는 동경 거 여자유학생친목회에게 讓하고 우리는 지금 『여자계』에 대하여 논문을 부하고 책자 賣興에 열심 하기로 작정이오며 만일 동경에 거류 제씨가 宅宅하고 발행하는 시에는 본회에서는 적립금 50원을 기부하고……云” 하였더라.

이 인용을 보면 『여자계』 발간의 발의는 평양 승의여중 동창회에서 했으며 인가까지 냈으나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가 그 명예를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다. 발행을 위해 사무실을 정한다면 기부금 50원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승의여중 동창회와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와는 폐

우호적인 관계인 것을 알겠다. 송의여중 동창회와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가 어떤 연유로 연계가 되었는데는 알 수 없으나 송의여중 동창회가 『여자계』 발간과 관련이 있다는 흥미있는 자료이다. 『여자계』는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 처음부터 낸 것이 아니라 송의여중 동창회에서 먼저 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활판으로 출간하면서 이를 제1호라고 생각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위에 인용한 소식란의 다른 기사를 참고하면 전년(1917년) 10월 17일에 여자 친목회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회장에 김마리아, 총무에 나혜석이 새로 뽑혔고 『여자계』 편집부장에 김덕성, 편집부원에 허영숙·황애시덕·나혜석, 그리고 편집찬조에 전영택·이광수를 선택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여자계』 제2호에 추호 전영택이 쓴 글을 참조하면 『여자계』 제1호 편집에 이미 전영택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맥으로 미루어 전영택이 기자로서 『여자계』 제1호 편집을 거의 전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영택의 「동경에서 부산까지-휴학 환국기」<sup>11)</sup>를 보면 전영택은 “잡지 일로 내무성에 출두하였다가 12시에야 돌아와서 여태껏 애쓰던 잡지 일은 시름을 놓고” 귀국을 서둘러 동경역에 나간다.

먼저 사생상(寫生箱)을 들으신 나정월씨를 보고 인사하고 잠깐 회화를 하였다. (중략) 나정월씨는 그네들(2호부터 『여자계』 편집부장을 맡은 김덕성 외 (인용자 주))을 전송차로 나오셨다. 겸하여 기자를 전송하려는 뜻도 있어 나오신 줄 안다.<sup>12)</sup>

나혜석은 이곳 동경역에서 『여자계』를 받아 요꼬하마, ○○학교 갈 것 등으로 나누었으며 전영택은 기차에서 김덕성에게 『여자계』 1호에 「여자의 본무」란 글을 기고해 준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김덕성은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도리어 남자 되신 이가 여자계를 위하

11) 추호, 「동경에서 부산까지」, 『여자계』 제2호, 1918.3, p.57.

12) 추호, 위의 책, 같은 면.

여 그렇게 힘써 일해 주시니 어찌 부끄러운지요.”라고 대답하고 있음에서 전영택이 『여자계』 1호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고, 이때 전영택이 만난 여성들이 19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제2호를 위한 편집 스태프로 뽑히고 있음은 주목되는 사항이다.

그 임시총회의 기사를 계속 참조하면 “이날에는 처음으로 회원 출석이 만원이 되어 이제껏 미뤄 내려오던 제반사무를 가뜰하게 다 처리하고 겸하여 『여자계』 편집사무를 본회에서 主幹하기로 만장일치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날 처음으로 회원출석이 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여자계』 1호 발간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에야 『여자계』 편집사무를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 주관하기로 한 것을 보면 창간호를 주관한 다른 단체나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그 단체가 평양 승의여중 동창회였을 것은 앞의 인용을 보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창간호의 주간은 승의여중 동창회가 하고 이때 전영택이 제작실무를 맡고 김덕성, 나혜석과 허영숙 등 나중에 편집부원으로 뽑힌 멤버들이 『여자계』 1호 발간시에는 집필자로 참여자하였던 것이다. 전영택이 쓴 글 속에 『여자계』 1호 운운이 나오고 일기체인 이 글이 7월 11일자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활판 『여자계』 창간호 발간 날짜와도 잘 맞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박화성이 승의여중 졸업생인 언니 박경애를 통해 『여자계』를 접하고 읽어보았을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화성은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승의여중 동창회가 『여자계』 판매에 ‘열심하기로’ 작정했다는 대목에서 이 『여자계』가 목포에까지 보급되었을 가능성을 읽게 된다. 박화성의 언니 박경애는 박화성이 숙명여학교에 유학하고 있을 때 배를 타고 평양 승의여학교로 유학을 갔고 후일 전주 기전여학교 교원으로 근무했다.<sup>13)</sup> 『여자계』가 나올 무렵은 언니 박경애가 승의여중을 졸업하고 있을 무렵이다. 그러니 승의여학교 동문에게 보급되었을 『여자계』가 박경애를 거쳐 문학소녀 박화

13)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여원사, 1960), p.61, 77 참조.

성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문학소녀에게 이 책은 대단한 감격과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으리라.

이제 박화성이 증언한 『여자계』 창간호의 내용과, 현재 확인 가능한 『여자계』 2, 3, 4, 5호의 목차를 대조해 볼 차례다. 나혜석의 「부부」와 함께 『여자계』 창간호에 실렸다는 춘원의 부인 허영숙 씨와 일엽 김원주 씨의 글이 『여자계』 2호부터 5호까지의 목차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는 박화성의 증언에 신빙성을 실어주는 것이다. 『여자계』 편집부원에 허영숙의 이름이 보이는데 2호 및 그 이후의 목차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1호에 허영숙의 글이 실렸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하겠다. 이는 동시에 나혜석의 소설 「부부」가 『여자계』 창간호에 실렸을 가능성 역시 높여주는 것이다.

### 3. 나혜석의 소설 「부부」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화성이 읽었다는 나혜석의 소설 「부부」가 나혜석의 다른 소설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일이다. 나혜석의 소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편 「부부」, 『여자계』 1917. 6. 30

단편 「경희」, 『여자계』, 1918. 3

단편 「희생한 손녀에게」, 『여자계』, 1918. 9

단편 「원한」, 『조선문단』, 1926. 4

장편 『김명애』(미간행), 1933. 12

단편 「현숙」, 『삼천리』, 1936. 12

단편 5편 가운데 부부의 문제가 소재로 등장하는 소설은 「경희」 「원한」이다. 이들 작품에 박화성이 말하는 “억울하게 학대받는 한 여성이 봉건적 유습에 비참하게 희생이 된 생활상이 재치있게 그려져” 나오는지 살펴보자. 박화성이 제공하는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이 짧은 줄거리에는 그러나 인물·사건, 그리고 디테일 세 가지가 나와 있다. ① 소설

의 주인공은 '억울하게 학대받는 여성'이고 ② 사건은 이 여성이 "봉건적 유습에 희생이 되는 이야기"이며 ③ 디테일은 '생활상을 채치있게 그리고'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정보에 부합하는 소설을 찾아본다.

우선 「경희」를 보면 억울하게 학대받는 여성이 나오기는 하나 주인공이 아니며 봉건적 유습에 희생되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주된 스토리가 아니다. 그에 비하여 「원한」은 부부의 이야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①항과 ②항, 그리고 ③항까지도 대략 맞아 든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원한」이 발표된 시기이다. 1926년은 박화성이 이미 작가로 등단(1925.1)한 후이므로 이 「원한」을 읽고 그 작품을 「부부」라고 기억했을 리가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 「원한」이 실린 잡지는 바로 박화성의 등단작 「추석전야」가 실렸던 『조선문단』인 것이다. 박화성은 분명히 『여자계』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 시기를 1918년, 1923년 두 가지로 썼고 자신의 나이가 18세 무렵이라고도 썼다. 그러니까 박화성은 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자신이 문단에 등단하기 전에 나혜석의 소설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기나 발표지면 두 가지만 보아도 「원한」은 박화성이 말하는 「부부」가 아니라는 심증이 가지만 무엇보다도 「원한」에 그려진 내용이 봉건적 유습에 희생이 되는 여성의 '생활상'이 아니라는 데서 「부부」와 같은 소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원한」은 주인공 이씨의 '여자의 일생'형 스토리이다. 생활상이 그려질 겨를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주인공 이씨는 봉건적 유습을 잠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지 희생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원한」도 박화성이 말하는 「부부」가 아니다.

또한 이 두 작품 모두 박화성이 말하는 '짤막한' 소설이 아니다. 「경희」는 2백자 원고지 120장이 넘고 「원한」도 2백자 원고지 60장이 넘는다. 짤막한 소설이라면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나 나혜석의 짧은 소설 「희생한 손녀에게」 정도 되는 2백자 원고지 20~30장 정도의 길이이어야 한다. 「부부」는 아마도 「희생한 손녀에게」와 비슷한 길이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이제 「경희」나 「원한」두 작품이 모두 박화성이 보았다는 「부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혜석의 「부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앞서 살핀 두 작품에 나오는 부부 소재의 인물·사건·디테일 등과 나혜석이 남긴 글들에서 부부에 대하여 보여준 견해 또는 시각을 모아봄으로써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의 내용을 짐작해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나혜석의 연구자들이 10년대 나혜석의 소설을 해석하면서 모두가 수긍하고 있는 점은 그의 소설이 당시에 씌어진 평론 「이상적 부인」 「잡감」의 소설화라는 점이다. 이를 참조하면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도 이 평론의 논조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1914년 12월의 「이상적 부인」, 1917년 3월의 「잡감」, 1917년 7월의 「잡감-K언니에게 여(與)함」, 이 세 편의 논지는 교육을 통한 실력 쌓기와 그 실력을 바탕으로 여자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여성해방의식이라 하겠는데 이 글에 나타난 봉건여성들에 대한 나혜석의 견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습관에 의하여 도덕상 부인, 즉 자기의 세속적 본분만 완수함을 이상이라 말할 수 없도다. 일보를 경진(更進)하여 차 이상의 준비가 없으면 아니 될 바요, 단히 현모양처라 하여 이상을 정함도 필취(必取)할 바이 아닌가 하노라. 다만 차를 주장하는 자는 현재 교육가의 상대적 일호책이 아닌가 하노라. 남자는 부(夫)요, 부(父)라, 양부현부(良夫賢父)의 교육법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다만 여자에 한하여 부속물 된 교육주의라. 정신수양 상으로 언 하더라도 실로 재미없는 말이다. 또 부인의 온양 유순으로 만 이상이라 함도 필취 할 바가 아닌가 하노니, 운(云) 하면 여자를 노예 만들기 위하여 차(此) 주의로 부덕의 장려가 필요 하였고다. 연(然) 금일의 부인은 장장 시간에 남자를 위하여 만 진무게 하는 주의로 양성한 결과 온양유순에 과도하여 그 이상은 태(殆)히 이비(理非)의 식별까지 부지하는 경우에 지(至)함이라. (이상적 부인)<sup>14)</sup>

14)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1914.12.

1914년에 이미 나혜석은 현모양처교육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 현모양처 교육은 여자에 한한 부속물 된 교육주의요, 교육가의 상매적(商賣的) 일호책(一好策)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이상적 성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온양유순(溫羊柔順)도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장려된 것이라 하였다. 오늘날 여성은 오랜 시간을 남성을 위해서만 진무케 하는 주의로 양성된 결과 온양유순에 과도하여 옳고 그름의 식별까지 알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1917년 3월에 쓴 「잡감」에서 나혜석은 여성이 가는 길을 눈내린 산길을 걸어 오르는 데 비유하고 있는데 앞서 간 발자국 가운데 헛디딘 발자국을 보매 동정이 간다고 쓰고 있다.

그 사람도 몇 군데 헛디딘 자국이 있는 것을 보니 이 두터운 눈을 한번 밝기도 발이 시리거든 그 사람은 길을 찾노라고 방황하기에 얼음도 밝게 되고 구렁이에도 빠지게 되었으니 아마도 그 사람의 발은 썩썩 얼었을 것 같소. 동동 구르며 울지나 아니하였는지 몹시 동정이 납데다. 그러나 발자국을 따라 반쯤 올라가니 그 사람의 간 길과 나 가고 싶은 길이 다르오 그래.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두텁게 깔린 눈을 푹푹 밟어야만 하게 되었소.....<sup>15)</sup>

이 글에서 나혜석은 앞서 간 사람이 눈 구덩이에 푹푹 빠져 고생하였을 것을 동정하고 그러나 앞서 간 그 사람과 자신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 분명히 쓰고 있어서 앞서 간 사람이 전통적 삶을 살아간 여성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이 여성들을 동정하는 마음이 몹시 '났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나혜석은 또한 바로 「부부」를 쓴 시기와 맞물리는 때에 발표한 「잡감-K언니에게 여함」에서는 “우리는 남자를 구수(仇讎)같이 알고 남녀 양성은 육으로만 결합되는 줄 이는데 남들은 남자를 이해하여 남성의 특징을 내가 취하기도 하고 여성의 장치를 그에게 자랑도 하여 남녀 양성간에 육 외에 영의 결합까지 있는 줄을 압니다.”<sup>16)</sup>라고 해서 남

15) 나혜석, 「잡감」, 『학지광』, 1917.3.

(서구의)과 달리 우리의 전통적인 남녀의 인식이 육적 결합만의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다음, 10년대에 쓴 글은 아니지만 부부를 제재로 한 글 「부부간의 문답」과 「젊은 부부」를 보자. 1923년에 쓴 「부부간의 문답」은 서양 가정의 풍습을 이상적인 가정생활로 보면서 부부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대화하는 내용이다. 조선가정에 대하여 하는 말로는 “우리들과 같이 죽지 못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상반이겠지요.” 한마디가 나오는 정도이다. 봉건적 유습에 희생을 당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젊은 부부」는 나혜석이 이혼하기 직전 1930년에 쓴 글로서 서울역 대화실에서 만난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봉건적 유습에 희생당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부로 살아가는 ‘살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쓰고 있어 이 글의 내용도 나혜석의 처녀작에 나온 부부의 이야기와는 상반되고 있다. 나혜석의 처녀작에 씌어진 구체적인 부부이야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처녀작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씌어진 「경희」와 9년 뒤에 씌어진 「원한」을 참고 할 수밖에 없다.

「경희」(1918)는 일본 여자 유학생이 주인공이고 전통적인 결혼과 평범한 여성의 삶을 거부하면서 한편으로 조선 가정의 개혁을, 또 한편으로 ‘여자도 사람이어야 하겠다’며 잔다아크·횃트·스라루 같은 나라를 구할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성개혁을 주장한다. 주인공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선가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배우지 못하고 깨치지 못한 여성으로 인한 가정 불화의 씨앗을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축첩의 비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나혜석이 「경희」에서 보여주는 배우지 못한 여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조선가정의 문제는 바로 수남 어머니가 며느리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들이다. 배우지 못한 수남 어머니의 며느리는 시집온 지 팔 년이 되도

---

16) 나혜석, 「잡감-K언니에게 여함」, 『학지광』, 1917.7.



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매어 정다이 드려 보지 못했다. 바늘을 쥐어주면 곧 졸고 앉았고 밥을 하라면 죽을 쑤어 놓고 나이가 먹어 갈수록 마음만 영똥해 가는 것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다. 배우지 못한 여성은 창조적으로 하기는커녕 남들이 하는 만큼의 흉내도 내지 못한다. 경희는 한숨짓는 수남 어머니를 보며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경희는 굳게 맹세한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경희」가 보여주는 조선가정의 문제는 ‘학대받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한심한 신세대 여성들의 행태다. 「경희」의 주인공 경희는 풍문으로 떠도는 여학생들의 온갖 부정적 이미지와 달리 바느질을 잘한다, 부엌일도 잘한다, 그리고 집안 일을 해도 고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한다. 학교에서 배운 음악의 운율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미술시간에 배운 색채의 조화도 적용해본다. 그리고 고된 일을 하는 아래 사람에게는 자애롭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떡 장사에게는 냉정하다. 이런 경희의 행동들은 당시 여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 나오는 여성들은 ‘억울하게’ 학대받는 세대나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조선가정의 문제로 보고 있는 축첩의 문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자. 「경희」에 나오는 사돈마님·할머니·어머니 모두는 다 축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경희의 할머니는 “사내가 첩 하나도 둘 줄 모르면 그것이 사내냐?”<sup>17)</sup>라고 이야기한다. 경희의 할머니가 이로 인해 속을 썩는다는 말은 없지만 첩 두는 것을 사내들의 일반화된 속성으로 치부함으로써 고통을 호도하는 문법이다. 그러나 경희가 하는 다음과 같은 속말은 사돈마님의 진심을 꿰뚫고

17) 나혜석, 「경희」, 『여자계』 2호, 1918.3, p.61.

있다.

……당신 댁처럼 영감 아들간에 첩이 넷씩이나 있는 것도 배우지 못한 까닭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예요. 그러니까 여편네가 시집가서 시앗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고 여편네 두고 첩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sup>18)</sup>

경희의 어머니 김부인도 경희가 부자 집에 시집가기 싫다고 하면서 ‘비단치마 속에 근심과 설움이 있’다고 하는 말에 공감한다.

김부인은 자기도 남부럽지 않게 이제껏 부귀하게 살아 왔으나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방탕하여서 속이 상하던 일과 철원 군수로 갔을 때에도 첩이 두 셋씩 되어 남 몰래 속이 썩던 생각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말은 아니하나 속으로 따는 네 말이 옳다 하는 적이 많았다.<sup>19)</sup>

이렇게 소설 속에 잠깐 비치는 정도이지만 할머니·사돈마님·어머니 등 구여성의 거의 모두가 절실히 겪고 있는 문제가 축첩이다. 「경희」의 주인공이 신여성이기에 구여성의 이러한 문제는 대화 중 잠깐 얼굴만 내미는 정도이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안될까? 조선가정에서 가장 시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난번 소설에서 정면으로 다루었으니 이 소설에서는 주제에 기여하는 정도로만 언급을 한 것이라고.

나혜석의 네 번째 소설 「원한」은 구여성의 전략의 기록인 셈인데 주인공 이씨가 남편과 부부로 산 기간은 바로 남편의 난봉으로 고통을 받은 기간이었다. 11세에 장가를 간 남편이라는 작자는 45년이 지나자 주색방탕, 난봉이 나기 시작하여 19세에는 술 중독으로 죽고 말았다. 15세에 시집 와서 23세에 과부가 된 이씨는 앞집 호색한 박 참판에게 겁탈을 당하여 그의 첩이 되고 얼마 아니하여 눈 밖에 나 거리의 행상이 되

18) 나혜석, 「경희」, 『여자계』, 1918.3, p.61.

19) 나혜석, 「경희」, p.68.

고 만 것이다. 「원한」은 남성들의 주색 방탕이한 여성의 일생에 드리운 비극을 그린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가정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남성의 주색 방탕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살피 나올 때 나혜석의 「부부」가 다른 봉건적 유습에 희생이 되는 이야기는 현모양처로 양육된 여성의 전통적인 여성의 삶의 길을 가다가 「눈과 얼음에 발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야기로서 남성의 축첩으로 빚어지는 비극을 그린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 4. 10년대 소설과 부부문제－맺음말

나혜석의 처녀작이 부부문제를 주제로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떠올릴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신문학사 초기 20년대 작가들이 여성문제 소설을 써서 등단하면서 한결같이 남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서 나혜석은 왜 부부문제, 또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재고를 주제로 하여 소설을 쓰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것은 이광수가 1916년부터 1917년 사이에 조선가정의 개혁 및 혼인에 관하여 쓴 글들이요, 셋째는 나혜석과 이광수의 가까운 관계이다. 그리고 넷째는 이광수의 10년대 단편 중에서 봉건적 유습으로 인한 부부문제를 다룬 단편 「무정」과 나혜석의 「부부」의 비교가 가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혜석의 첫사랑이 비극으로 끝난 이야기나 김우영과의 결혼의 전말, 최린과의 스캔들 등을 미루어서 나혜석이 자유연애에 매우 적극적인 성품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나혜석의 소설 속에서는 자유연애를 예찬하는 문맥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그에 대한 선입견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다. 실상, 그의 첫사랑도 「약혼이 먼저였고 사랑은 그 다음이었다」<sup>20)</sup>는 증언이 있고 보면 「인형의식의 파멸」이나 「불

20) 염상섭, 「추도」, 『신천지』 제9권 1호, 1953.12, p.106. 「연애에서 약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약혼에서부터 출발하여 열렬하고도 화려한 사랑의 꽃이 만

꽃의 여자'등의 주인공으로서만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 자유분방한 그의 면모는 후일 자전적 단편 「현숙」에 일부 드러난다고 보고 있기도 하나 최소한 그의 소설에서 낭만적 사랑의 동경 따위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의 초기 논설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공부해서 사업합시다”는 그의 계몽주의적 의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그의 문학관을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하겠다. 이에 우리는 나혜석과 계몽주의자 이광수의 가까운 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sup>21)</sup>

이광수가 일본 복택유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쓴 것으로 믿어지는 신결혼관·부부관은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거니와 개화사상이나 자유연애사상(신도덕)의 수입은 그 어느 것보다 전통적 결혼으로 인한 비극에 소설적 관심을 머물게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이광수의 일기를 보면 이광수는 처녀작을 쓸 무렵 입센을 읽고 있으며<sup>22)</sup> 1910년 단편 「무정」에서 봉건적 결혼제도에 희생되는 ‘부인’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sup>23)</sup> 이 단편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나혜석의 처녀작과 그 주제에서 상당히 유사함을 본다. 나혜석과 이광수가 동경 시절 가까운 관계였다는 ‘설’은 여러 군데서 찾아지는데 나혜석이 소설을 쓰는데 이광수의 지도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이광수의 논설<sup>24)</sup>과 소설을 읽었으리

개 되었던 것이었었다.”

21) 이구열, 『에미는 선자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1976, pp.24~25. 이구열은 춘원이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의 소개로 나혜석을 알게 되었으며 둘이 한때 연애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 그는 나혜석의 글들이 춘원의 지도 아래 씌어졌다고도 보았다. 이는 『김명애』의 원고를 춘원에게 보낸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하겠다. 또 같은 책 다른 곳에서 이구열은 춘원의 부인 허영숙이 춘원전집을 발간하면서 나혜석의 편지들을 아직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다면서 가져갔다고 쓰고 있다.

22) 이광수, 「일기」, 『전집』 19권, p.19.

23) 서정자, 「이광수 초기소설과 결혼모티프」, 『어문론집』 제3집(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3).

24) 이 시기 이광수의 논설은 ① 조혼의 악습 ② 조선가정의 개혁 ③ 혼인에 대한 관견 ④ 야소교의 조선에 준 은혜 ⑤ 혼인론 ⑥ 자녀중심론 ⑦ 신생활론

라는 추단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나혜석이 쓴 소설 「원한」은 이광수의 단편 「무정」과 그 모티브에서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되겠다.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가 씌어지는 데는 이광수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전제 아래 이광수의 단편 「무정」과 나혜석의 단편 「부부」를 비교해 본다.

이광수의 단편 「무정」은 봉건적 유습에 희생이 된 억울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광수의 처녀작 「어린 희생」과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진 단편 「무정」은 1910년 3월~4월 『대한홍학보』 11호와 12호에 실린 작품이다. 나혜석의 「부부」와는 7년 정도의 상거가 있다. 단편 「무정」의 주인공 ‘부인’은 16세에 12세의 한명준과 결혼을 하나 명준은 부인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조혼의 신랑은 17세가 되었을 때 외박이 빈번하여 오입쟁이 칭호를 얻고 19세에 이르러 급기야 첩을 얻게 된다. 첩 두는 것을 허락 받기 위해 7년만에 동침한 후 부인은 잉태하였으나 생부 제일에 본가에 갔다 돌아와 보니 자기 방에 다른 여자가 들어앉아 있다. 무녀에게 짐을 친즉 잉태한 아이가 딸이라 하여 낙심한 ‘부인’은 자결을 하고 만다는 줄거리이다. 남편의 축첩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다. 물론 이 소설의 비극은 축첩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조혼, 게다가 당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정해 준 혼인이며 또 혼인의 조건에서 문벌과 재산 가족을 우선 조건으로 본 전통적 결혼제도의 모순이 비극의 씨앗이다.

우리는 이 소설의 줄거리가 나혜석의 「부부」와 같이 봉건적 유습으로 억울하게 학대받아 죽어 가는 여성의 이야기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우리는 ‘부인’의 억울하게 학대받는 ‘생활상’을 만날 수가 없다.

---

등으로서 그 논지는 첫째,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하는 결혼은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결혼은 적령기에 달한 남녀가 서로 애경의 감정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셋째, 이를 위하여 여자도 교육을 시켜 우선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서정자, 「이광수의 초기소설에 나타난 결혼모티브」, 위의 책 참조.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이야기일 뿐 ‘부인’이 억울하게 학대받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이광수의 습작에 가까운 초기작품임을 감안하더라도 남성작가가 여성을 그럴 때 흔히 범하는 피상적 묘사를 이광수는 이 소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인’이 소설 속에 등장할 때부터 주인공은 아예 여성의 공간을 떠나 남성의 공간으로 나아 온다. 독약이 든 사기 병을 들고 ‘부인’이 뒷문을 방싯 열고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의 생활공간으로 장면이 이동하는 법이 없이 줄곧 남성중심의 공간에서 이야기는 진행되고 끝난다. ‘생활상’이 그려질 여지가 없다.

나혜석의 소설 「경희」의 경우,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기에 그 절실함은 더욱 실감 있게”<sup>25)</sup> 전달된다. 김재용, 이상경들은 이광수의 소설과 비교해서 나혜석의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나혜석의 소설기법을 감안할 때 나혜석의 「부부」에는 축첩의 비극을 줄거리로 해서 억울하게 학대받는 전통적 여성의 생활상이 실감 있게 그려져 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나혜석은 신문학 초기 남녀작가를 불문하고 남녀의 사랑을 문제 삼은 것과 달리 결혼문제(「부부」), 여성의 자각(「경희」), 애국정신(「회생한 손녀에게」) 등을 소설화한 보기 드문 지사형 작가이다. 여성해방의식을 바탕으로 계몽주의적 주제를 소설화한 것이다. 나혜석의 소설 「부부」를 읽고 경탄을 아끼지 않은 육당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

25) 김재용, 이상경의,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앞의 책, p.220.

26) 김재용과 이상경들은 나혜석의 「경희」와 이광수의 소설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광수의 소설에서 주장되는 반봉건주의의 추상성과 비교하면, 모호한 연애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여성의 일상생활의 한 단면을 포착하여 봉건주의가 신여성에게 가하는 다양한 편견과 압력,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여성의 자의식의 추이를 섬세하게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근대소설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위의 책, p.220.

…소설 같은 것은 그 묘사가 극히 주도(周到)하고 극히 섬실(纖悉)해야 미상불 유염인(有髣人)의 필치에 견주어 특색이 저절로 나타났다 할러라<sup>27)</sup>

이상 나혜석의 처녀작 「부부」에 대하여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작품을 찾지 못한 상황임에도 웅색하게나마 글을 꾸려 본 것은 나혜석에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박화성의 증언 한 줄이 나혜석 소설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준 귀한 계기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기록의 고마움과 자세히 읽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발표가 되지 못한 채 사장된 장편 『김명애』와 함께 처녀작 「부부」의 존재는 나혜석이 최초의 여성소설을 쓴 작가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박화상은 그가 생존했더라면 “우리를 압도하는 큰 소설가가 되었을”<sup>28)</sup> 것이라고 극찬을 하였는데 박화성 역시 나혜석에게서 범연하지 않은 작가적 역량을 보았던 것이다.

---

27) 육당, 「여자계」, 『청춘』 제10호, 1917.9, p.12.

28) 박화성, 앞의 책, p.273.

